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바람 잘 날 없는 미국, 달러자산 한정 약세 속 코스피 관망세

-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훼손 = 미국 신뢰 하락
- 관세 협상 대기 중, 관망세 뚜렷
- 실적시즌, 대선 공약 등에 따른 종목 & 테마장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1Q25 Preview] CJ: 올리브영 역성장 우려 과도

- 2025년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연결 자회사들의 25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기 때문
- 25년 상고하저의 실적 흐름을 예상하며, 상반기 주가 조정 시 비중확대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1Q25 Review] HD 현대일렉트릭: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과도한 주가 하락

- 1Q25 영업이익 2,182억원(+69% YoY), 미국/중동 업황 호조 지속
- 25F 영업이익 9,121억원(+36%), 관세 부담 축소 등 실적전망치 상향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400,000원→13로 상향(+6%)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1Q25 Preview] 비에이치: 저평가는 심화, 2Q 흑자전환 전망

- 1Q25 영업이익(-142억원)은 적자지속(qoq), 컨센서스 하회 전망
- 2Q25 영업이익은 282억원으로 흑자전환(qoq) 추정
- 2025년 밸류에이션 저평가(P/B 0.5배, P/E 5.3배), 저점 판단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1Q25 Preview] 대덕전자: 1Q 부진하나 2Q 회복 예상

- 1Q25 영업이익은 -43억원(적지 qoq/yoy), 컨센서스 하회 전망
- 2Q25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흑전(qoq/-44.6% yoy) 추정
- 2025년 2Q 사항 MLB 매출 시작 / 하반기 FC BGA 매출 증가 예상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바람 잘 날 없는 미국, 달러자산 한정 약세 속 코스피 관망세

-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훼손 = 미국 신뢰 하락
- 관세 협상 대기 중, 관망세 뚜렷
- 실적시즌, 대선 공약 등에 따른 종목 & 테마장세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훼손 = 미국 신뢰 하락

전일 미국증시 3대지수 일제히 -2%대 큰 폭으로 하락,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파월 의장을 "Mr. Too Late"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 이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촉발시키며 미국과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는 모습. 달러인덱스(98.4)와 미국채(10년 물 금리: 4.43%)는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약세인 반면 비달러 안전자산 강세, 금 선물은 온스당 3,400달러 후반대까지 상승하며 파죽지세. 엔화(달러-엔 140.4), 유로화(유로-달러 1.15) 등 비미국 통화 강세

관세 협상 대기 중, 관망세 뚜렷

코스피 지난주 17일부터 4거래일 연속 강보합세 유지되고 있으나, 거래는 극도로 위축된 모습. 7거래일 연속 코스피 거래대금 6조원대 이하. 특히 최근 2거래일 연속 거래대금 5조원대 기록한 뒤 3거래일만에 6조원대 회복

이번주 목요일 밤(미국시간 24일 오전 8시) 시작되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앞둔 기대감도 존재하는 반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관망세가 뚜렷.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관망심리 우세

실적시즌, 대선 공약 등에 따른 종목 & 테마장세

방산 업종 강세. 1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수출 호조 및 호실적 전망

방산: LG넥스원(+7.2%), 한국항공우주(+3.4%), 현대로템(+3.4%) 등

조선 및 기자재 업종 또한 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미국과 협력 기대감 지속

조선: HD한국조선해양(+3.8%), 한화엔진(+5.9%), 동성화인텍(+3.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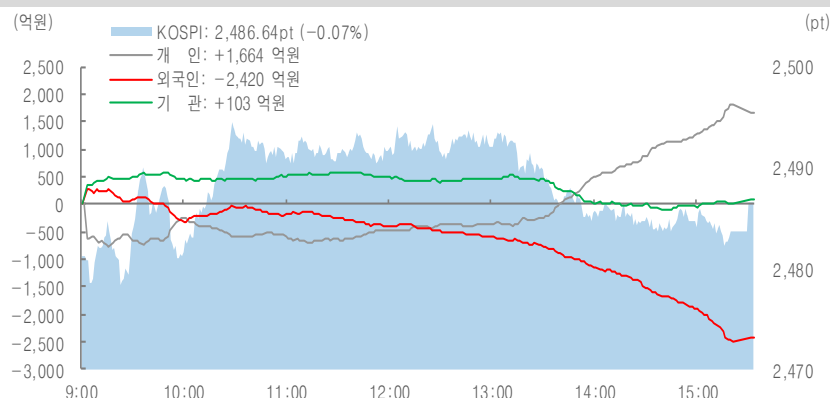
풍력에너지, 정부의 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및 19조원 투자 계획 & 이재명 후보의 친환경 공약 발표

풍력에너지: SK이터닉스(+17.3%), SK오션플랜트(+6.5%), 씨에스윈드(+4.1%) 등

전력기기 업종 HD현대일렉트릭 실적발표, 호실적에도 업종 전반 차익실현 출회

전력기기: HD현대일렉트릭(-9.8%), 효성중공업(-8.2%), 일진전기(-6.2%) 등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J
(001040)

양지환

jhwang.yang@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50,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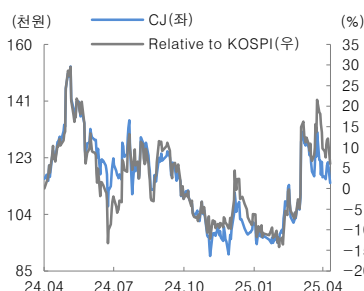
113,500

(25.04.22)

지주업종

KOSPI	2488.42
시가총액	3,86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8%
자본금(보통주)	14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52,700원 / 90,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3억원
외국인지분율	11.98%
주요주주	이재현 외 6 인 47.78% 국민연금공단 10.6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9	16.2	6.3	-1.7
상대수익률	-5.4	17.6	11.3	2.4



올리브영 역성장 우려 과도

- 2025년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연결 자회사들의 25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기 때문
- 25년 상고하저의 실적 흐름을 예상하며, 상반기 주가 조정 시 비중확대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50,000원으로 3.4% 상향(NAV증가 반영)

CJ의 2025년 1분기 실적은 당사의 직전 추정치 및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 주된 이유는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ENM, CJCGV 등 주요 연결 자회사 및 계열사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부진하기 때문

최근 동사의 주력 비상장 자회사인 CJ올리브영의 25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로 주가가 크게 조정 받았으나, 역성장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

올리브영의 24년 실적은 매출액 4.8조원, 순이익 4,790억원을 시현했는데, 당사는 2025년 올리브영의 실적이 매출액 5.35조원(+11.8% yoy), OPM 12~1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며, 매출 성장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상반기 9.8%, 하반기 13.5%)

CJ올리브영의 자사주 매입으로 CJ 및 특수관계인의 올리브영에 대한 지분율이 100%에 달하게 되어 CJ와 올리브영의 합병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 또한 올리브영의 가치(당사는 약 6.2조원으로 평가, 24년 순이익에 P/E 13배 부여)가 CJ의 주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 하지만,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25년 1분기 연결 매출 10조 5,857억원, 영업이익 6,121억원으로 추정

CJ의 주요 자회사별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대비 대부분 10% 이상 하회할 것으로 예상. [CJ제일제당 - 컨센서스대비 약 10% 하회, CJENM - 컨센서스대비 약 30% 하회, CJCGV - 컨센서스대비 약 10% 하회 등] (3 page 표 참조)

지난 주말 모 언론사에서 자체 Data를 근거로 올리브영의 1분기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올리브영의 1분기 역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짐. 하지만 해당 Data는 해외, 온라인, 그리고 외국인의 구매내역 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 1~2월 소매판매액 누계는 +0.8%(yoy) 증가하였으며, 전문몰(올리브영 포함) GMV는 9.7%(yoy) 증가. 당사는 1분기 올리브영의 매출액은 1조 1,775억원(+9.1% yoy)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역성장 우려는 과도하다는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1Q24	4Q24	직전추정	당사추정	1Q25(F)			2Q25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0,436	11,683	10,996	10,586	1.4	-9.4	11,014	11,355	6.3	7.3
영업이익	576	630	667	612	6.2	-2.9	643	690	3.6	12.8
순이익	71	7	86	-63	적전	적전	75	-85	적전	적지

자료: CJ,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HD현대일렉트릭

릭

(267260)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00,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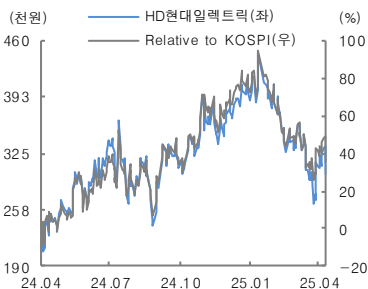
(25.04.22)

301,000

유틸리티업종

KOSPI	2486.64
시가총액	10,85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1%
자본금(보통주)	18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45,000원 / 227,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126억원
외국인지분율	31.24%
주요주주	에이치디현대 외 3 인 38.70% 국민연금공단 8.0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6	-25.0	-8.6	32.3
상대수익률	-2.9	-23.2	-5.6	39.9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2,703	3,322	4,211	4,683	5,423
영업이익	315	669	912	1,023	1,206
세전순이익	311	650	882	990	1,166
총당기순이익	259	498	680	772	909
지배지분순이익	259	502	680	772	909
EPS	7,189	13,914	18,876	21,419	25,228
PER	11.4	27.5	17.7	15.6	13.2
BPS	29,077	41,662	56,537	72,561	92,182
PBR	2.8	9.2	5.3	4.1	3.3
ROE	27.7	39.3	38.4	33.2	30.6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HD현대일렉트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과도한 주가 하락

- 1Q25 영업이익 2,182억원(+69% YoY). 미국/중동 업황 호조 지속
- 25F 영업이익 9,121억원(+36%), 관세 부담 축소 등 실적전망치 상향
- 향후 미국발 3중 우려 해소 등으로 밸류에이션 일정 수준 회복 기대

1Q25 영업이익 2,182억원(+69% YoY) 기록. 미국/중동 업황 호조 지속

1Q25 매출액 1,01조원(+26.7%, 이하 YoY), 영업이익 2,182억원(+69.4%)을 기록.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1,966억원, 당사 추정치 2,047억원에 부합. 4Q24에서 이연된 매출은 1,800억원 수준. 영업이익률은 21.5%(+5.4%p) 기록. 이는 고마진의 전력기기 매출비중 상승(1Q24 40%→1Q25 46%), 북미향 매출비중 상승(28%→38%) 등에 힘입은 것임. 4Q24 대비 영업이익률은 0.9% 개선에 그쳤는데, 이는 4Q24 대비 북미향 매출비중은 증가했지만, 본사의 전력기기 매출 비중은 감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미국법인의 매출비중이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수주금액은 13.4억달러로 4Q24 대비 68.8% 증가했지만, 1Q24 대비 7.2% 감소함. 수주 계약 시기의 차이 등으로 계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우려사항은 아님. 회사 측에서는 여전히 미국 및 중동의 전력망 투자 확대, 전력기기 공급 부족, 선박용 전력기기 수주 등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힘

25F 영업이익 9,121억원(+36%), 관세 부담 축소 등 실적전망치 상향

2025년 매출액 4.21조원(+26.7%, 이하 YoY), 영업이익 9,121억원(+36.4%), 영업이익률 21.7%(+1.6%p) 전망. 미국 관세 영향, 환율 전망치 하향 등에도 고마진의 미국향 전력기기 수출 확대 등으로 완만한 수익성 개선 기대. 가동률은 95% 이상인 상황이며, 4Q22 이후 미국의 변압기 PPI 상승은 완만해진 점 등을 감안하면, 2022 ~ 24년과 같은 고정비 부담 감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수익성 상승은 아니지만, 완만한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

동사는 1Q25 실적 컨퍼런스에서 미국 고객사와 관세 관련 교섭은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밝힘. 미국향 매출액 1.78조원, 미국향 수출금액 0.80조원 기대. 관세 25%의 적용기간(출하 후 고객 인도 1.5 ~ 2개월)은 관세 유예로 기존 7개월에서 4개월(9 ~ 12월)로 축소하고, 공급부족 지속을 반영해 동사의 부담율을 30%(기존 50% 가정)로 하향, 실적 전망치를 소폭 상향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400,000원으로 상향(+6%)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400,000원(실적전망치 상향 반영)으로 상향. 4/22 서프라이즈한 것은 없었지만, 실적 발표 이후 주가 급락은 과도. 1) 향후 상호 관세 축소 또는 관세 부담 100% 전가 성공 시, 추가 실적 상향 조정 가능. 2) 더딘 설비증설 속도, 풍부한 현금흐름 재투자 부족 등으로 2024년과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 정당화(12MF PER은 최대 24배까지 상승)는 쉽지 않을 수 있음. 향후 유럽 또는 HVDC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업황 개선 및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지역 또는 사업분야에서도 수주 확대, 추가 증설, M&A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성 확장 필요. 다만, 3) 향후 미국발 3중 우려(데이터센터 투자 버블, IRA 폐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관세) 해소, 동사의 북미 이외 지역에서의 경쟁력 확인, 4Q25 이후 배전용 차단기 증설을 통한 수익성 개선 등으로 일정 수준의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

비에이치

(09046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0,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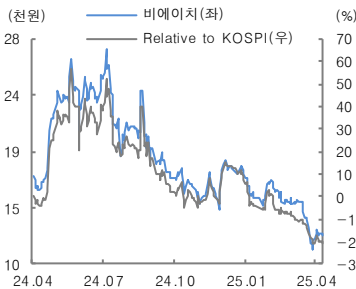
12,290

(25.04.22)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2486.64
시가총액	42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1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7,150원 / 11,16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8억원
외국인지분율	10.84%
주요주주	이경환 외 6 인 21.37% 국민연금공단 7.19%

주식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8	-21.7	-28.5	-23.0
상대수익률	-12.7	-19.8	-26.1	-18.6



저평가는 심화, 2Q 흑자전환 전망

- 1Q25 영업이익(-142억원)은 적자지속(qoq), 컨센서스 하회 전망
- 2Q25 영업이익은 282억원으로 흑자전환(qoq) 추정
- 2025년 밸류에이션 저평가(P/B 0.5배, P/E 5.3배), 저점 판단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20,000원으로 하향(13%)

2025년 1Q 영업이익은 -142억원(적지 qoq/적전 yoy), 매출은 3,250억원(-33.4% qoq/8.8% yoy),으로 예상. 영업이익은 2개 분기 연속으로 컨센서스 하회한 부진한 실적. MLB(다층인쇄회로기판, HDI)의 낮은 가동률으로 고정비 부담 지속, 재고 관련한 비용의 추가적인 반영으로 분석. HDI 부문은 2024년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11인치/13인치)에서 디스플레이향 PCB를 연성에서 HDI(경성, MLB)로 교체 전환, 비에이치가 신규 투자를 진행. 아이패드 프로의 판매 부진과 경쟁사가 공급을 담당하면서 실적 부진으로 연결. 2025년 주당순이익(EPS)을 종전대비 18.5% 하향, 목표주가를 20,000원(2025년 목표 P/E 8.5배(평균화한 적용))으로 하향, 투자의견은 매수(BUY) 유지

2Q25 영업이익은 흑자전환(qoq) 추정, 밸류에이션 저평가

그러나 부진한 2025년 1Q 실적은 현 주가에 반영 판단, 2Q 실적 회복(영업이익 흑자전환) 및 밸류에이션 저평가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중확대 유지. 투자포인트는

1) 2Q25 영업이익은 282억원으로 흑자전환(qoq/-10% yoy), 매출은 4,484억원으로 38%(qoq/-4.3% yoy) 증가를 추정. 애플의 아이폰17향 선행 생산이 시작, R/F 매출 증가를 예상.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애플 아이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나 초기 생산은 계획대로 2Q에 진행 전망

2) 현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2025년 기준으로 P/E 5.3배, P/B 0.5배로 역사적인 저점, 저평가로 판단. 2025년 성장(매출 -0.1%(yoy), 영업이익 0.6% yoy)이 과거 대비 낮으나 전장(차량용 무선충전기) 및 HDI(태블릿) 에서 점유율 확대, 2026년 이후에 차별화된 성장을 기대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고, 저평가로 판단.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

2025년 1Q 영업이익(-142억원)은 적자지속(qoq/적전 yoy)

2025년 1Q 매출은 3,250억원(8.8% yoy/-33.4% qoq), 영업이익은 -142억원으로 적자지속(qoq/적전 yoy) 추정. 아이폰16 모델 중 프로/프로맥스 판매 양호로 애플향 R/F PCB 매출은 26.2%(yoy) 증가 예상. 반면에 차량용 무선충전기(BH EVS) 매출은 769억원으로 14.1%(yoy/-7.4% qoq) 감소 추정. 전기자동차 수요 부진으로 매출 둔화가 예상. 전체 매출은 양호하나 수익성 부진이 심화. 신사업인 HDI(주기관)의 매출 부진, 고정비 부담이 가중

(단위: 십억원 %)

구분	1Q24	4Q24	직전추정	당사추정	1Q25(F)			2Q25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99	488	341	325	8.8	-33.4	319	448	-4.3	38.0
영업이익	8	-5	9	-14	적전	적지	6	28	-10.0	흑전
순이익	11	-5	11	-9	적전	적지	10	25	-4.8	흑전

자료: 비에이치,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대덕전자 (35320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0,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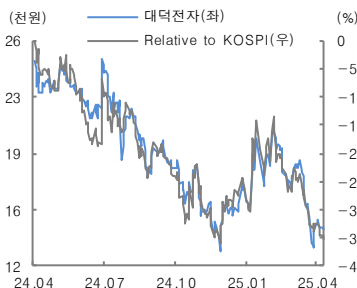
14,270

(25.04.22)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2486.64
시가총액	72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3%
자본금(보통주)	2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4,900원 / 12,87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8억원
외국인지분율	9.62%
주요주주	대덕 외 5 인 32.76% 국민연금공단 8.3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3.3	-25.3	-14.6	-37.5
상대수익률	-18.5	-23.5	-11.7	-34.0



1Q 부진하나 2Q 회복 예상

- 1Q25 영업이익은 -43억원(적지 qoq/yoy), 컨센서스 하회 전망
- 2Q25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흑전(qoq/-44.6% yoy) 추정
- 2025년 2Q Si향 MLB 매출 시작 / 하반기 FC BGA 매출 증가 예상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20,000원 하향(13%)

2025년 1Q 실적은 종전 추정대비 부진, 매출(2,149억원)과 영업이익(-43억원)은 각각 전년대비 0.1% 증가, 적자지속 추정. 종전의 영업이익은 -10억원에서 적자 확대로 예상. 비수기이나 비메모리인 FC BGA 매출 부진 및 낮은 가동률의 지속으로 고정비 부담이 주요한 요인. 또한 메모리 계열의 반도체 기판에서 매출 부진, 고객사의 재고조정(낸드 중심) 영향으로 전체 매출이 부진하면서 추가적인 고정비 부담이 가중. 2025년 주당순이익을 종전대비 7.2% 하향

다만 1Q25에서 부진한 실적은 현 주가에 반영, 2Q에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을 추정, MLB에서 신규 고객향(Si향) 매출 예상된 점이 긍정적인 요인, 중장기 관점에서 비중확대 유지. 투자의견은 매수(BUY) 유지하나 목표주가는 20,000원(2025년 주당순자산(BPS) X 실적 회복기의 상단, 목표P/B 1.16배 적용)으로 13% 하향. 투자포인트는

2Q25 흑자전환(qoq) 추정 및 Si향 MLB 매출 시작

1) 2025년 2Q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3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qoq)을 전망. 메모리 계열의 반도체 기판이 저점(1Q25)을 지나면서 매출 증가, 또한 MLB에서 신규 고객으로 Si향 매출이 예상.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한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하나 디램과 낸드에서 생산 증가로 관련한 메모리 계열의 반도체 기판(MCP 등) 매출이 전분기대비 증가 전망. 2Q 매출은 2,309억원(7.4% qoq)으로 손익분기점을 상회 추정

2) 2025년 주목한 Si향 MLB 매출이 2Q에 신규 반영, 연간 350억원의 매출을 추정. MLB의 전체 매출은 2,050억원으로 전년대비 34.4% 증가 등 가장 높은 성장을 예상.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MLB 시장에서 대덕전자가 신규 고객 확보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으로 해석

3) 2025년 하반기에 FC BGA 부문에서 점진적인 가동률 개선, 매출 증가를 예상. 자동차의 전장화 및 자율주행 적용 확대로 FC BGA 수요도 동반하여 회복, 증가를 전망. 감각상가비 감소와 맞물리면서 가동률 개선은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 2026년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에 토대를 제공

2025년 1Q 영업이익(-43억원)은 적자지속(yoy/qoq), 컨센서스 하회 전망

2025년 1Q 영업이익 -43억원(적지 yoy/qoq) 추정, 비메모리인 FC BGA 매출은 453억원으로 전년대비 8.5%(yoy) 증가하나 반도체 기판의 매출은 2.9% 감소하여 고정비 부담이 가중된 시기로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1Q24	4Q24	직전추정	당사추정	1Q25(F)			2Q25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15	206	212	215	0.1	4.1	211	231	-3.1	7.4
영업이익	-3	-6	-1	-4	적지	적지	-3	6	-44.6	흑전
순이익	2	4	3	1	-67.1	-85.2	3	8	-31.1	1,199.6

자료: 대덕전자,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